

werden-구성의 의미분석과 상황유형

이점출(중앙대)

1. 서론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통적인 기동동사 및 기동구조로 알려진 werden + 형용사구성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Vendler의 네 가지 상황유형을 명시하는 데 있다.

기동동사(起動動詞 Inchoativum)의 구조에 대해 갖는 관심은 기동동사의 기본적인 의미특성과 통사특성을 기술하고 있는 Lakoff(1965)의 논문으로 소급된다. '기동동사'란 altern, reifen, erkranken, sterben 따위와 같은 동사들을 위해서 차용한 범주의 명칭이다.

먼저 다음 문장들 사이에 있는 관계들의 특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 (1) Bei wechselnden Zielen *ermüdet* man schnell.
- (2) Bei wechselnden Zielen *wird* man schnell *müde*.

모든 독일어 화자들은 이 문장들이 동의어(Synonym)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이들은 이태릭체 부분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문법은 화자의 이러한 "지식"에 관해 기술하는 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기동동사 자체의 체계적이며 엄밀하고 검증 가능한 분석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다.

기동동사와 기동구조인 형용사 + werden 사이의 동의관계에 대한 체계성(Systematik)이 이러한 분석에 대한 발상을 제공한다. 다른 언어에서처럼 독일어에서도 다음과 같은 종류의 규칙적인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 (3) altern = alt werden verarmen = arm werden
ermüden = müde werden erkranken = krank werden

dunkeln = dunkel werden erstarken = stark werden
 reifen = reif werden faulen = faul werden

여기서 쌍의 성분들이 가끔 아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동사의 해석이 형용사구조의 해석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의 분할이 설명된다.

- (4) Das Obst wurde faul = Das Obst faulte
 Peter wurde faul - *Peter faulte
- (5) Das Mädchen wurde rot = Das Mädchen errötete
 Der Apfel wurde rot - *Der Apfel errötete
- (6) Der Mann wurde schnell alt = Der Mann alterte schnell
 Das Brot wurde schnell alt - *Das Brot alterte schnell

모든 기동동사에 대해 해당 형용사구조가 전부다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는 의미에서 위에서 제시한 쌍의 형성에 대한 완전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우연한 여백(Lücke)과 체계적인 여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기동적인 형용사구조에 대해 기동동사가 전부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7) hart werden - *harten weich werden - *weichen
 schartig werden - *verscharten traurig werden - *ertrauern
 warm werden - *erwarmen

독일어에서는 특정한 형용사 반의어 쌍들 중에서 각각 한 성분만이 기동동사로서도 나타나는 일종의 하위규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 (8) arm werden = verarmen : reich werden - *verreichen

stark werden = erstarken : schwach werden - *erschwachen
 trocken werden = trocknen : nass werden - *nassen
 kalt werden = erkalten : warm werden - *erwarmen

이러한 유표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의 경우에는 (7), (8)에 있는 여백이 재귀적인 기동동사로 채워질 수도 있다.

(9) warm werden=sich erwärmen hart werden = sich verhärten
 steif werden=sich versteifen schmutzig werden=sich beschmutzen

기동적인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은 기동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 werden으로 구성된 구조들도 포함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동구조로 알려진 werden + 형용사구성을 하나의 범주 '기동동사'로만 해석하지 않고, werden과 그 보충어와의 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Vendler의 네 가지 상황유형인 상태, 진행, 완성 및 성취를 명시하고자 한다.

2. werden + 형용사의 의미분석

2.1 시동동사 beginnen

시동동사(始動動詞 ingressives Verb)를 고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잠정적으로 beginnen + 보충어(Complement)의 의미분석을 시도해 보자. beginnen은 'if-and-only-if' 동사이다. 한 상태가 시작된다고 하는 단언(Behauptung)은 이 상태도 역시 지속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한 상태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단언은 이 상태도 역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두 경우에서 그 상태가 "전"(Vorher)에는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된다. 다음 문장의 쌍 (10)의 분석은 (11)과 같을 것이다

(Steinitz 1975: 36f.).

(10) Peter wird krank.

Peter beginnt krank zu sein.

(11) A(인명) : BEGINN (krank, x)

I(함축) : krank, x

P(전제) : "vorher": NEG(krank, x)

시동동사의 특성을 beginnen + 보충어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

1) 분석 (11)이 보이는 바와 같이 두 상보적인 상태가 의미 안에 포함되었다. 이에 반해 "진행"(Prozess)과 같은 개념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2) beginnen + 보충어는 분명히 한 상태(NEG(S))에서 다른 상태(S)로의 불연속적인 변화의 개념에 근거한다.

(12) Peter beginnt zu essen. (Er aß vorher nicht.)

3) 관련된 상태는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 문장 (12)에는 "먹지 않은"(Nichtessen) 상태와 "먹은"(Essen) 상태가 있다.

4) "시작된" 상태나 과정에 대해서 "전"에 적용되는 상태로서 그것에 모순적인 상태가 대립된다. 다음 문장 (13)의 beginnen은 문장 (12)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3) Peter begann zu wachsen.

한 상태나 진행 역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하나의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 즉 "후"(Nachher)에 적용되는 상태의 부정으로서 정의되어 있는 상태((12)에 대해서: Peter hat vorher nicht gegessen)나 또는 "후"에 적용되는 진행의 부정으로서 정의되어 있는 상태((13)에 대해서: Peter wuchs vorher nicht).

beginnen은 시간적인 연장(Ausdehnung)을 갖는 하나의 과정을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다음 예와 같이 소위 순간동사(Momentanverb)가 beginnen의 보충어로 올 수는 없다.

(14) *Peter begann aufzuschreiben.

시간적인 연장이 결합가능성에 대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밖에 표현된 과정은 그 시작(Anfang)과 관련하여 표지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aufschreiben에서는 전적으로 시간을 요구하는 하나의 과정을 표현하는 aufhorchen과 똑같이 시작이 표지되어 있다. beginnen 자체는 시작, 즉 보충어에서 언급된 시간적으로 연장된 과정의 시작에 대한 표지를 갖는 동사의 순수한 어휘어이다. 시작을 표지하는 동사와 beginnen과의 결합은 허용되지 않는 동의어 반복(Tautologie)을 포함한다.

(15) *Peter begann mit dem Essen zu beginnen.

*Peter begann aufzuhorchen.

이미 시작이 표지된 과정에서는 시작점이 다시 한 번 표현될 수 없다. 동사 aufhorchen은 전적으로 이 관계에 적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aufhorchen이 진정한 시동동사이다.

2.2 werden-구성의 제 의미

먼저 다음과 같은 문장들 사이에 있는 동의구문(의역 Paraphrase) 관계를 살펴보자.

(16) Peter wird dick.

(17) Peter wird dicker und er wird (bald) dick sein.

문장 (16)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정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Steinitz 1975:18f.).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단면인 “후”에는 상태 “Peter ist dick”이 적용된다.
2. 그때까지, 즉 “전”에는 이와 상보적인 상태 “Peter ist nicht dick”이 적용된다.
3. 같은 정도로 “전”에는 전체가 과정으로서 특징지어지는 특수한 종류의 상태들의 연속체 “Peter wird dicker”가 적용된다.

dicker werden(및 zunehmen)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결코 기동동사가 아니다. 그 이유는 목표상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속동사(持續動詞 duratives Verb)의 부류에 속한다.

이 관계에서 흥미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속동사의 특징에 관해서 간단히 논의해 보자. 여기서는 다음의 예를 통해서 설명되는 적어도 두 가지 하위부류가 있다.

- (i) schweigen, schlafen, essen, breit sein, dick sein, dunkel sein, ...
- (ii) zunehmen, wachsen, steigen, sinken, älter werden, breiter werden
dunkler werden, ...

이 동사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각각 다음을 통해서 특징지어져 있는 상태들의 연속체를 표현한다는 점이다.

- 연속체의 요소들 사이에 있는 관계들의 동질성을 통해서
- 이들의 시간적인 무제한성(Unbegrenztheit)을 통해서

모든 변화동사(變化動詞 mutatives Verb)는 부류 (ii)의 지속동사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무제한적인 진행동사이거나 또는 지속동사이다.

동시에 후상태가 지속동사에서 언급된 진행을 명백히 제한하기 때문에 변화동사를 우측 제한적인 진행동사라고 볼 수 있다.

변화동사에 대한 다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 | |
|-------------------------|----------------------|
| (18) groß/klein werden, | lang/kurz werden |
| breit/schmal werden, | schwer/leicht werden |
| stark/schwach werden, | alt/jung werden |
| hell/dunkel werden, | warm/kalt werden |
| eng/weit werden, | arm/reich werden |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변화동사 dick werden에 속하는 한 집단의 동사들을 분석에서 ‘기동동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집단의 동사들과 대조시켜 보자. 이 다른 집단의 동사, 즉 시동동사(始動動詞 ingressive Verb)라고 일컫는 동사들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9) erkranken = krank werden
 verstummen = stumm werden
 aufwachen = wach werden
 sich bräunen = braun werden
 zerbrechen, eintreten, abfahren, losgehen, abfliegen, aufhorchen,
 anheben (zu sprechen), erblühen, jemanden lieb gewinnen

변화동사에서처럼 여기서도 두 가지 어휘화변형, 즉 동사 또는 형용사 + werden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일부는 둘 다 실현되고 일부는 각각 하나의 변이형만이 실현된다. 변화동사와 시동동사 사이의 이러한 공통점이 하나의 통일적인 기술을 유도한다.

1. 앞에서 변화동사를 위해 설정된 정보의 사용에서 상태표현 (20)은 두 가지 상태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Steinitz 1975:30f.).

(20) Peter wird krank.

- a) “후”에 배열될 수 있는 하나의 상태가 “Peter ist krank”의 의미를 통해서 파악된다.

b) 처음의 상태에 대해 상보적인 위치에 있고 “전”에 배열되어 있는 다른 상태가 “Peter ist nicht krank”의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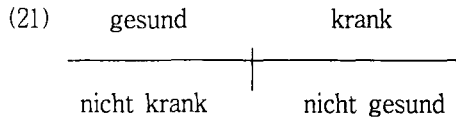
그러나 변화동사와는 달리 krank werden은 세 번째 동사로서 “kränker + werden”을 포함하지 않는다. 형용사 + werden의 원급형태와 비교급형태 사이에 있는 상이한 관계는 두 대표적인 형용사 dick과 krank의 예문에서 설명된다. dick werden의 진행성분으로서의 “dicker werden”이 krank werden에서는 어떤 대응물도 갖지 않는다면(필연적으로 “kränker werden”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krank werden은 진행적인 것은 아무 것도 포함하지 않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상보적으로 배열된 두 상태뿐이다.

2. 변화동사는 연속체(Kontinuum)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변화동사는 한 과정(Vorgang)을 개체에 의해 진술된 속성이 그 강도에서 증가하는 하나의 연속적인 진행(Prozess)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강도(=값)가 정의된 규범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상태의 연속체를 거쳐서 속성의 강도가 규범을 초과한 상태로 끝난다. 따라서 모든 변화동사는 생각할 수 있는 진행의 (상대적인) 종단점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용사 포함한다. 이에 반해서 시동동사는 두 가지 불연속적으로 배열된 상태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이 상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즉 이들은 변화동사처럼 역(konträr)의 반의어 쌍(groß → nicht klein, klein → nicht groß)으로 표현되지 않고, 모순적(kontradiktorisch)인 반의어 쌍(krank ↔ nicht gesund, gesund ↔ nicht krank)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물론 반의어 형용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모든 형용사가 다 쌍으로 배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관계를 역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부정된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평균값(Durchschnittswert: D)의 존재에 기인한다(nicht klein = groß oder D). 모든 변화동사와 이들 안에 포함된 형용사(=변형형용사)는 반의어로 표현된 양 최대값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값(Mittelwert)에 관련되어 있다.

시동동사와 시동형용사에서는 이와 다르다. 여기서는 한 형용사와 그 형

용사의 부정된 반의어 사이에 등가관계가 있으며 이들의 영역은 일치한다. 평균값이 없으며 모든 형용사는 다만 그 반의어와 관련해서만 0에서 시작하지 않고 양방향으로 무제한적인 단계로 이동해 갈 수 있다. 영점(Nullpunkt)을 통해서 비교될 수 있는 표지는 반의어로 표현된 상태들 사이의 경계표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형용사 + werden 내지는 이것의 동의어인 동사로 구성된 모든 구조들을 하나의 범주 “기동동사”로 포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필자는 비교급 형용사와 werden으로 구성된 구조를 무제한적인 진행동사(unbegrenzttes Prozessverb) 또는 지속동사(持續動詞 duratives Verb)라는 이름으로 기술하였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Steinitz 1975:47f.).

- (22) a) dicker werden = zunehmen, dünner werden = abnehmen
 größer werden = wachsen, kleiner werden = schrumpfen
 älter werden jünger werden = sich verjüngen
 schneller werden = sich beschleunigen
 b) kränker werden / nässer werden
 lebendiger werden / brauner werden

Lakoff(1965)의 기동동사에 대한 예들 중에서 다른 예들은 이들이 각각 하나의 해석에서 변화동사나 또는 지속동사라는 점에서 중의적이다. 예컨대 다음 동사들이 중의적이다.

- (23) harden = become hard oder become harder
 cool = become cool oder become cooler
 thicken = become thick oder become thicker

dunkeln = werden dunkel oder werden dunkler

reifen = werden reif oder werden reifer

2.3 비교분석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는 지속동사, 변화동사 및 시동동사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1. 변화동사는 필수적으로 지속동사(형용사의 원급에 상응하는 비교급)를 포함한다. 시동동사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의 문장들이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24) Peter wird dicker, aber nicht dick.

*Peter wird dick, aber nicht dicker.

*Peter wird kränker, aber nicht krank.

*Peter wird krank, aber nicht kränker.

2. 지속동사가 기술되어야 하는 출발형태이면 다른 관계가 생겨난다. 지속동사는 원칙적으로 단지 하나의 단언만을, 즉 형용사에서 언급된 범위에 대한 값의 지속적인 증가를 갖는다. dicker werden을 통해서도 도달되어야 하는 후상태, 이를테면 “dick sein”에 관해서 어떤 것도 진술되지 않는다(따라서 “무제한적인 진행동사”라는 표현을 쓴다).

3. 그러나 지속동사는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의 귀속에 따라서 변화형용사로 명명되거나 또는 시동형용사로 명명되는 전제에 결부되어 있다.

“시간”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성분 “진행”(Prozess)이 변화동사에서 뿐만 아니라(dick werden) 지속동사에서도(dicker werden) 관여한다는 것이다. 무제한적인 진행을 표현하는 지속동사 dicker werden에서는 개개 의미요소들이 두 가지 표층성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우리가 “진행”을 개별상태를 표현하는 기본척도의 서열 위에서 값들의 끊임없는 변화로 이해한다면, 형용사의 비교급은 다음을 명명한다.

1. 기본척도의 유형 (여기서는 “체중”)
2. 값의 변화방향 (여기서는 “상승적”)

그리고 werden은 오직 “진행”의 추상적인 의미특성에 관한 표층의 반영체일 뿐이다.

변화동사 dick werden 안에 있는 형용사의 기본형은 다음을 명명한다.

1. 기본척도의 유형
2. 값의 변화방향. 이 둘은 비교급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표지이다.
3. 값의 척도 위에서 고정값의 명명으로서, 진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상태의 표현(여기서는 “dick sein”)

werden은 다시 동사의 의미특성에 속하는 “순수한 진행”을 명명한다. 이전에는 werden을 그 의미기술 안에 특수한 전상태와 후상태가 포함되어 있는 순수한 기동동사(Inchoativum)로 해석했다. 이에 반해 여기서는 werden을 순수한 진행동사(Prozessverb)=(지속동사)로 확정하는 것이다. werden은 진행의 특성과 무제한성이 확실한 sich verändern, sich wandeln, sich entwickeln과 같은 동사들과 함께 하나의 목록 안에 온다.

많은 사실들이 변화동사, 시동동사, 지속동사의 상이한 의미특성을 오로지 형용사나 형용사 형태의 연관적인 차이들로부터 도출하는 것을 인정한다. 즉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는 (상대적으로) 비표지된 형태로서 표지된 원급의 형용사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급의 형용사 형태는 추가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서 변화동사는 단언의 일부로서 지속동사를 포함한다.

werden에 대해 “지속적인 진행동사”(duratives Prozessverb)라는 명칭은 특수한 방법으로 구별되는 개별상태들의 연속체에 대한 명칭으로서의 의미기술에 기인한다. 시간과 관련한 세 가지 상이한 고찰방법은 werden과 보

총어와의 결합에서 세 가지 상이한 특징을 초래한다(Steinitz 1975:56).

1. 시간적으로 무제한적인 고찰방법은 과정이 개별상태들의 무제한적인 연속체로 간주되는 결과를 낳는다(이것은 지속동사, 즉 보충어 없는 werden에서도 적용된다).

2.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시간단면에 제한된 고찰방법은 개별상태들을 목표상태나 후상태로 부각하여 제한함으로써 과정을 개별상태들의 우측 제한적인 연속체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는다. (모든 다른 개별상태들은 그 상보적인 집합에 속하며 동시에 의미기술에서 전제로서 기능한다.) 변화동사가 여기에 배열될 수 있다.

3. 과정의 순간적인 수용과 특히 시작의 순간적인 수용이 특징적인 “시점적”(punktuell)인 고찰방법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과정을 단지 두 부분상태의 연속체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는다. 두 상태는 반의어 쌍의 두 성분을 통해서 명명되거나 형용사 및 형용사의 부정을 통해서 명명된다. 시동동사가 여기에 속한다.

1.과 2.의 경우에서만 시간연속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변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며, 그렇게 기술된 과정만이 “진행”(Prozess)이라는 표현을 얻을 수 있다. 3.의 경우에는는 상태의 유일한 변화를 표현하는 “변화”(Wechsel)가 더 좋은 표현이 되겠다. 그러나 두 용어는 상태변화에 대한 하나의 통일적인 기본개념에 관련되며, 그런 점에서 werden은 모든 세 가지 동사부류에서 여전히 통일적인 방식으로 의미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개괄적인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teinitz 1975:58f.).

(25)

	지속동사 (<i>dicker werden</i>)	변화동사 (<i>dick werden</i>)	시동동사 (<i>krank werden</i>)
1 의미기술	A : WERDEN (<i>dicker, x</i>) (P : NEG (<i>dick, x</i>))	A : "Vorher": WERDEN (<i>dicker, x</i>) "Nachher": <i>dick, x</i> (단언문 집합) P: "Vorher": NEG(<i>dick, x</i>)	A : BEGINN (<i>krank, x</i>) I : <i>krank, x</i> P : "Vorher": NEG (<i>krank, x</i>)
2 심층배열/ 표층배열	<i>werden</i> : 형용사에서 명 시되는 진행의 명명 <i>dicker</i> : 1. 기본척도의 명명 ("체중") 2. 값의 변화방향 명명 ("상승적")	<i>werden</i> : = 지속동사의 특성 <i>dick</i> : 1.=1. } 지속동사의 2.=2. } 특성 3. 결과로 생겨나는 후상태의 명명 ("dick sein")	<i>werden</i> : 상태변화의 명명 및 형용사에서 언급된 새로운 상태시작의 명명 <i>krank</i> : 변화가 시작되는 상태의 명명 ("krank sein")
3 관점	과정이 연속체로 파악됨		과정이 두 상태의 불연속적 인 연속체로 파악됨
4 제한	무제한적인 지속적인 진행	우측 제한적인 진행 (진행의 끝이 표지됨)	좌측 제한적인 상태 (상태의 시작이 표지됨)

	변화동사	시동동사
5 기준값 관계	기준값 관계 조건: 기준값 및 그 초과와 관련하여 형용사의 비교변화 가능성	기준값 관계가 없음 기준값 및 그 초과와 관련하여 형용사 가 비교변화를 할 수 없음
6 진행성	의미기술에서 비교급 형용사를 포 함하며 항상 진행의 특성을 지님	비교급 형용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일 차적으로 진행의 특성을 지니지 않음
7 상태변화	진행이 상태변화를 유발함 (=기준값의 초과)	가능한 진행이 한 상태의 내부에서 일 어남(상태변화가 없는 강도의 증가)
8 역의 반의어: 모순적 반의어	기준값 관계를 통한 반의어의 역관 계	반의어의 모순관계
9 의역	<i>dicker werden und</i> (<i>dann</i>) <i>dick sein</i>	<i>beginnen krank zu sein</i>

3. 연사 sein/werden의 의미형태

시간적인 배열과 상적인 배열을 책임지는 완전동사 안에는 다른 논항 이외에도 상황논항(Situationsargument) s가 고정되어 있다. sein, werden, bleiben과 같은 연사동사 역시 이런 관점에서는 완전동사처럼 행동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들의 과제가 연사동사로서 끝난다. 연사의 고유의미는 예컨대 상태동사와 기동동사를 구별하는 부류형성적인 의미성분에 국한된다.

연사구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연사 sein에 집중하고 있는데, sein의 의미는 Bierwisch(1988:46)에서 술어논항 P의 실현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의미형태(Semantische Form:SF), 즉 sein의 언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26) /sein/ $\lambda P\lambda x\lambda s$ [s_{INST} [Px]]

INST는 동사의 의미형태 안에 있는 상항(Konstante)이다. INST의 논리유형은 $\langle t, \langle e, t \rangle \rangle$ 이며 명제 p를 “실현시키는” 상황논항 s에 하나의 명제를 관련시킨다.¹⁾

많은 사람들은 원칙적인 이유에서 술어상항 INST를 비판한다. 이들은 sein의 의미표현으로서 P(x,s)를 선호한다. 상항 INST 없는 P의 유형은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이며 두 번째 논항으로서 상황논항 s를 취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동사만이 상황을 지시하는 논항 s를 취한다. 이 논항은 명제의 시간적, 양상적 및 상적인 배열을 위한 결합장소이다. P는 연사의 술어논항으로서 유형 $\langle e, t \rangle$ 의 1항술어가 되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INST를 도외시하면 werden은 일반적으로 BECOME [Px]로 표현된다. BECOME은 명제에 대한 연산자(Operator)이며 따라서 논리형태는 $\langle t, t \rangle$ 이다.

1) 이 논문에서는 내포(Intension)가 주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 몬테규식 표기법의 일반적인 약어로서 - 일반적으로 외연적인 유형만을 사용한다. 이때 t는 명제의 논리유형이고 e는 개체나 명사의 논리유형이다. $\langle e, t \rangle$ 는 1항술어로 이해될 수 있으며 논항 e와 더불어 하나의 문장 t를 산출한다.

- (27) a) groß werden : nach Berlin gehen
 b) größer werden : südwärts gehen
 c) schwanger werden : in Berlin ankommen

위의 자료와 이 동사구조에 배열되는 다음에 논의되는 상황유형 a) 완성(완수, Accomplishment), b) 진행(Prozess), c) 성취(달성, Achievement)를 고려해 볼 때, BECOME의 제한적(telisch)인 의미가 세 가지 모든 문맥에서 적절한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werden의 의미형태(SF)는 의미상 비표지된 sein과는 부류형성적인 술어 BECOME을 통해서 구별된다.

- (28) /werden/ $\lambda P\lambda x\lambda s$ [s INST [BECOME [Px]]]

BECOME은 제한적인 술어이며 그 의미는 예컨대 von Stechow(1996:96, (3-11))의 진리조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29) \parallel BECOME \parallel (P)(e)=1. (단 e는 최소사건이며 P는 e의 전상태에서는 참이 아니지만 e의 목표상태에서는 참이다.)

이 정의는 70년대의 생성의미론에서 일상적인 용어, 즉 BECOME을 통해 함축된 후상태 P와 전제된 상보적인 전상태 Neg P의 용어와 일치하며, altern, sterben, ankommen, alt/groß werden, schwanger werden과 같은 제한적인 술어에 적용된다.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제한적인 술어 BECOME이 진행동사인 wachsen, größer werden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werden이 상태술어 sein과는 제한성(=상태변화 Zustandswechsel)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werden이 비명시적인 비상태술어나 또는 “변화술어”라는 사실을 통해서 구별된다. 개체 x의 속성과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werden은 이 변화가 다른 상태로 되는지 또는 되지 않는지 하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결정한다면 그것은 다만 이 변화가 시점적

(punktuell)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술어논항 P를 werden-구성의 전체 의미에 개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에 도달하게 된다. werden의 의미는 제한성의 관점에서는 미정이다. 다만 BECOME을 통해서 익숙해진 “제한성”(Telizität)이라는 연상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werden의 의미성분으로 CHANGE라는 의미술어를 사용하겠다. CHANGE[Px]란 모든 형용사적 werden-구성 안에 있는 werden의 기저 의미 성분이거나 또는 불변의 의미성분이다. CHANGE[Px]는 상황을 무제한적인 진행으로 지시하는 표현(예: größer werden)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제한이나 후상태로의 변화를 지시하는 표현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비원자적 변화(예: groß werden)와 원자적(atomar) 변화(예: schwanger werden)가 동시에 파악되어야 한다. 어휘내항에서는 불변의 의미만이 표현된다(Steinitz 1999:125).

(30) /werden/ λPλxλs [s INST [CHANGE [Px]]]

CHANGE는 지금까지의 BECOME처럼 논리유형이 <t,t>이다. s(일명 e)는 특수한 유형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논항이다. 여기서는 CHANGE가 술어 BECOME을 대신한다. BECOME의 의미는 CHANGE의 문맥의존적인 다수의 가능한 의미들 중의 하나이다.

4. Vendler의 상황유형

명제(Proposition)는 동사의 의미형태 안에 있는 상황논항 s에 따라서 상황을 지시한다. 시간부사와 동사적 표현과의 양립성이 지금까지 동사적 표현을 상황유형(Situationstyp)에 배열하는 데 대한 시험방법이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동사가 문장의 어휘적 핵어(Kopf)로서 상황유형을 미리 결정한다. sitzen은 상태술어이며 그 논항들과 더불어 하나의 상황을 동질적이며 정태적으로 특징짓는다. wachsen은 진행술어이며, altern, sterben, töten은 보충어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건술어이다.

Vendler(1967) 이후의 문헌에서는 상황의 범주화와 다양한 분류에 대해

수많은 제안들이 있으며 혼란스러울 정도로 용어상의 다양성이 존재한다.²⁾ 필자는 Steinitz(1999:126f.)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인 상태(Zustand), 진행(Prozess), 완성(완수, Accomplishment) 및 성취(달성, Achievement)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이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상황을 동질적(homogen)으로 기술하는 명제는 다른 상태로의 변화에 대한 어떤 확정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보적인 전상태에 대한 어떤 확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Dowty(1979)에 따르면 상태술어는 시간적으로 동질적이다. P(x)는 T의 모든 부분시간에 대해 참인 경우에만 시간 T에 대해 참이다.

wachsen/größer werden, laufen의 의미와 같은 동사의미를 포함하는 명제도 역시 wissen, sitzen, schlafen, sehen의 의미처럼 상황을 동질적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전자의 동사들에서는 T의 모든 부분시간에 동일한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술어논항에서 언급된 속성의 값은 s의 모든 부분상황 s_i 에서 변화한다. 즉 wachsen과 laufen은 진행(Prozess)을 기술한다. 이에 반해 후자의 동사들에서는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으며, Peter schläft와 Er sieht mich는 상태를 지시한다. 이러한 확정은 상태가 비의도적이라는 일반적인 확정과는 구별된다.³⁾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Vendler식의 상황유형 구

2) 개념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 즉 상황유형이나 사건유형 이외에 또한 다른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동작상(Aktionsart)과 상(Aspekt)이 있는데 이것이 많은 오해를 초래한다. 중첩되는 기능영역을 제외하고는 슬라브어에서의 문법범주 구조인 완료상/미완료상, 여러 가지 상황유형에서 작동하는 영어에서의 비진행상/진행상 및 슬라브어나 핀란드-헝가리어에서의 동작상은 이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상이나 동작상 대신에 상황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사건의 속성을 위해서는 완결성(terminativ), 제한성(telisch), 이질적인 동의성(inhomogen synonym)을 사용하고, 상태와 진행의 속성을 위해서는 비완결성(aterminativ), 비제한성(atelisch), 동질성(homogen)을 사용한다.

3) Dowty(1979)에 따르면 be tall, be true; exist, stink, live, burn; like, similar, proud; love, know, see, hear, be in NP, sit in NP ... 가 잘 알려진 통사적인 특성(영어에서는 진행형이나 명령형을 만들지 못함 등)을 갖는 상태동사들이다. 그에 따르면 be brave, be nice to NP; be a clown; run, swim; rain; eat; drive, push NP; seek for; watch ...가 행위동사(동작동사 Activity)이다(의도적).

별을 위해서는 진행성과 상태변화가 중요하지 의도성은 중요하지 않다. 의도성(행위자의 속성)은 상태표현(*beobachten* : *sehen*) 뿐만 아니라 사건표현(*töten* : *sterben*)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하위부류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상황을 이질적(*inhomogen*)으로 기술하는 명제는 상황의 성공적인 종결에 대한 확정을 포함하는데, 이 명제는 - 양화된 개체논항에서처럼(*ein Haus bauen*) - 목적어가 “점차로 사건에 종속하는” 사실에 대한 확정이나 또는 - 술어논항에서처럼(*groß werden, ins Zimmer laufen*) - 추구하는 후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확정을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에서는 상태변화(*Zustandswechsel*)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상태와 후상태가 서로에 대해 상보적이고 각각 서로 다른 시간에서 참이 된다.

상태와 진행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비제한성과 제한성의 가능한 교체이다. *laufen, bauen*과 같은 진행동사(=이동동사)만이 적당한 논항과 함께 제한적인 술어(*in die Stadt laufen, einen Apfel essen*)를 형성하고, *beobachten*(*die Kinder beobachten*)과 같은 상태동사는 제한적인 술어를 형성하지 못하며 항상 비제한적(*atelisch*)이다.

진행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동사들은 목표첨가어나 양화 DP와 더불어 후상태로 향해 시간적으로 연장되거나 적어도 연장될 수 있는 변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예: *in die Stadt laufen, ein Haus bauen*). 하위유형 완성동사의 술어들만이 비제한적인 대응물을 갖는다(*südwärts laufen, Brei essen*). 이에 반해 사건의 하위유형인 성취동사(*ankommen, finden*)에서의 상태변화는 시간적인 연장이 없는 원자적인(*atomar*) 변화이다. 비제한적인 해석이 강요되지 않는 한, 이 동사들은 모든 보충어 문맥에서 성취동사가 된다.

일차적인 접근에서는 “진행성”(Prozesshaftigkeit)과 “제한성”(Telizität)이 여러 가지 상황유형을 결정한다.

(31) 상황유형

	동 사	진행성	제한성	상황유형
1	groß/wach sein, schlafen, im Zimmer stehen, wissen, jemanden sehen	-	-	상태
2	größer werden, wachsen, schweifen, Häuser bauen, westwärts gehen, Wein trinken	+	-	진행
3	groß werden, altern, verarmen, in die Stadt gehen, ein Haus bauen	+	+	사건 (완성)
4	sterben, schwanger werden, ankommen, betreten, einen Groschen finden	-	+	사건 (성취)

gehen, werden은 두 상이한 유형 사이에서 교체된다. werden은 모든 세 가지 비상태적인 상황유형인 진행, 완성, 성취에서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 논문에서의 분석의 출발점이 된다.

5. werden-구성의 명시화

AP + sein:

sein-구성은 그 술어논항의 하위부류와 관계없이 상태술어이며 상황을 동질적이며 정태적으로 지시한다. 동질적인 상황이 시간 T에서 참이면 T의 모든 부분시간에서도 참이 된다. 동질적인 술어는 상황시간 외부에 있는 명제, 즉 이웃상황(전상태와 후상태)을 지시하는 명제에 대한 어떤 관계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술된 상황의 시작과 끝에 대한 확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AP + werden:

werden은 그 보충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황을 비정태적으로, 즉 술어논항에서 언급된 속성과 동일한 값을 갖는 부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변화를 기술한다. werden이 무표의 정태적인 연사 sein과는 술어 CHANGE를 통해서 구별된다. CHANGE는 제한성과 진행성의 관점에서 결정되어 있지 않다. 비교급의 AP는 가변적인 값을 갖는 속성을 표현한다. 제한이 없는 변화가 진

행이다. 원급의 AP는 속성에 대한 고정값을 표현한다. werden과 더불어 이 고정값은 목표상태나 또는 후상태로 해석된다. 함축된 후상태가 있는 변화는 제한적(telisch)이며 사건(Ereignis)을 나타낸다. 절대형용사의 문맥 안에 있는 werden은 Nicht-P에서 P로의 직접적인 변화를 통해서 표지되며 이 변화는 어떤 진행성도 허용하지 않고 원자적(atomar)이다. 제한적인 술어로서 이해되는 BECOME은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보충어 안에는 더더욱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한적인 (비동질적) 변화:

groß werden과 schwanger werden은 비동질적인 술어이며 werden의 술어논항은 어휘적 핵어로서 원급의 형용사를 취한다. 척도에서 고정된 단면을 표현하는 이들의 내재적인 속성은 변화동사 werden의 문맥 안에서 변화에 대한 제한과 목표(TARGET)를 지시하는 기능을 얻는다. 원급의 관계형용사나 절대형용사의 개별적인 의미형식을 위해서 약어 P_{relp} 내지는 P_{abs} 가 사용된다. $CHANGE[P(x)]$ 는 이 문맥에서 술어 TARG를 통해서 축적된다. 다음의 의미공준(Bedeutungspostulat)이 적용된다(Steinitz 1999:146ff.).

$$(32) \forall s (\exists s'[s' \text{ TARG } s] \leftrightarrow \exists P_{relp/abs} \exists x[s \text{ INST } [CHANGE [Px]]])$$

이로써 목표상태의 실제적인 도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전통적인 견해인 BECOME성분은 도달된(완료) 목표상태와 도달되지 않은(미완료) 목표상태 사이에 있는 이러한 구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자적인 변화:

“schwanger werden”은 원자적인 변화술어이다. 그 부정과 모순관계에 있는 절대형용사(P_{abs})의 속성으로부터 변화상황 s가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점적(punkuell, ATOMar)이라는, 즉 s의 부분상황 s_i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조건하에서 서술어(Prädikation)는 또 다른 성분인 ATOM을 추가하게 된다.

$$(33) \forall s([ATOM\ s] \leftrightarrow \neg \exists s_i [s_i \subset s])$$

TARG와 ATOM은 어휘단위의 의미형식 werden + 형용사에 대한 모든 통사적인 교체형(즉 sterben, einschlafen, altern 등)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

상황유형이란 단어의 의미가 의미공준과의 결합으로부터 생겨나는 특정한 배치에 대한 이름이다.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34) \forall s([ZUSTAND\ s] \leftrightarrow df \forall P \forall x \forall s_i [[s\ INST\ [Px] \ \& \ s_i \subset s] \rightarrow [s_i\ INST\ [Px]]])$$

변화상황은 술어 CHANGE로 표시되는 비상태이다. 어떤 목표가 있는 변화 상황이 사건(Ereignis)이다.

$$(35) \forall s([EREIGNIS\ s] \leftrightarrow df \exists P \exists x [[s\ INST\ CHANGE\ [Px]] \ \& \ \exists s' [s'_{TARG}\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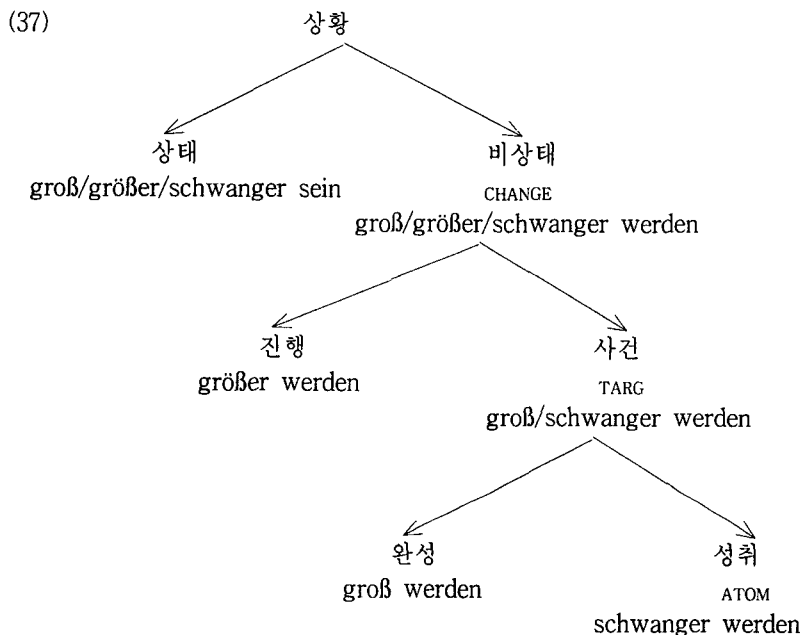
진행(Prozess)은 목표가 없으며 CHANGE를 통해서 충분히 특징지어져 있다. 달리 말해서 목표로 하는 후상태가 없는 변화가 진행이다.

성취(달성, Achievement)는 원자적(atomar)인 사건이다.

$$(36) \forall s([ACHIEVEMENT\ s] \leftrightarrow df \exists s' [s'_{TARG}\ s] \ \& \ [ATOM\ s])$$

완성(완수, Accomplishment)은 TARG를 통해서 충분히 특징지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원자적으로 특징지어져 있지 않은(nicht-atomar) 목표지향적인 변화가 완성이다.

유형들 상태, 진행 및 완성은 개별적인 명시화의 부재에서 생겨난다. 술어 CHANGE, TARG, ATOM으로 표현되는 점점 계약적인 명시화는 다음과 같은 상황유형의 계층에 연결된다(Steinitz 1999:148).



우리는 4장에 있는 도표 (31)과 같은 단지 두 가지 의미부류의 성분(± Prozess, ±Become)만을 가지고서는 기술할 수 없는 상황유형들 사이의 표지관계에 대한 기술을 얻게 된다. 하나의 상황유형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 제약적인 술어(즉, +로 표지된 자질)의 증가와 더불어 유형의 표지도 역시 증가한다.

(38)

상황유형	CHANGE [Px]	S' TARG S	ATOM S
상태			
진행	+		
완성	+	+	
성취	+	+	+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Lakoff(1965) 이후로 기동구조로 알려진 werden + 형용사 구성을 하나의 범주 '기동동사'로만 해석하지 않고, werden과 그 보충어와의 결합에 따라서 변화동사(*werden + dick*), 시동동사(*werden + krank*) 및 지속동사(*werden + dicker*)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Vendler의 네 가지 상황유형인 상태, 진행, 완성 및 성취를 명시하였다.

변화동사는 진행의 끝이 표지되므로 우측 제한적인 진행동사이며, 시동동사는 상태의 시작이 표지되므로 좌측 제한적인 상태동사이고, 지속동사는 무제한적인 진행동사이다. 변화동사와 지속동사에서는 과정이 연속체로 파악되지만 시동동사에서는 과정이 두 상태의 불연속적인 연속체로 파악된다. 변화동사는 의미기술에서 비교급 형용사를 포함하며 항상 진행의 특성을 지니고 진행이 상태변화를 유발한다(기준값의 초과). 그러나 시동동사는 비교급 형용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일차적으로 진행의 특성을 지니지 않고 가능한 진행이 한 상태의 내부에서 일어난다(상태변화가 없는 강도의 증가). 따라서 모든 세 부류(변화, 시동 및 지속동사)에서 werden을 통일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는 데 대한 동기가 충분히 있다.

werden의 의미형태는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술어인 BECOME[P(x)]로 표현된다. werden이 변화술어라는 사실을 통해서 상태술어 sein과 구별된다. 이 논문에서는 werden의 의미성분으로서 제한성을 표현하는 BECOME 대신에 CHANGE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CHANGE는 제한성과 진행성의 관점에서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CHANGE[P(x)]는 werden + 형용사구성 안에 있는 werden의 기저 의미성분이다. CHANGE가 문맥에 따라서 다수의 의미를 갖는데 이들 중의 하나가 BECOME이다. 단지 진행성(±Prozess)과 제한성(±Become)만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보다는 의미술어 CHANGE, TARG, ATOM을 사용하면 Vendler의 네 가지 상황유형을 보다 명확히 기술할 수 있다. 변화상황은 술어 CHANGE로 표지되는 비상태이며 어떤 목표가 있는(TARG) 변화상황이 사건이다. 목표로 하는 후상태가 없는 변화가 진행이다. 성취는 원소적(ATOM)인 사건이다. 완성은 TARG를 통해서 충분히 특징지어져 있다. 즉 원소적으로 특징지어져 있지 않은(ATOM) 목표지향적인 변화가 완성이다.

참 고 문 헌

- 이점출(역)(2000): 독일어 동작상 연구. 한국문화사, 서울.
- (R. Steinitz(1975, 1977, 1981 und 1999) und S. Glavina-Ivanus(1995))
- Bierwisch, Manfred(1987): Semantik der Graduierung. In: M.Bierwisch/E. Lang(Hgg.) 91-286.
- (1988): On the Grammar of Local Prepositions. In: M. Bierwisch/W. Motsch/I. Zimmermann (Hgg.), 1-65.
- Dowty, David(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Synthese Language Library, Vol. 7. Dordrecht: Reidel Publ. Company.
- Herweg(1991): Temporale Konjunktionen und Aspekt. In: Kognitions-wissenschaft 2: 51-90.
- Kiparsky, P./Kiparsky, C.(1970): Fact. In: M. Bierwisch & K.E. Heidolph(eds.): Progress in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S. 143-173.
- Krifka, Manfred(1989): Nominalreferenz und Zeitkonstitution. Zur Semantik von Massentermen, Pluraltermen und Aspektklassen. München: Fink Verlag.
- Steinitz, Renate(1975): Sind alle Inchoativa inchoativ? In: Linguistische Studien des ZISW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eft 18, 1-82.
- (1977): Zur Semantik und Syntax durativer, inchoativer und kusativer Verben. Linguistische Studien. Berlin, Reihe A, 35, S. 85-129.
- (1981): Der Status der Kategorie "Aktionsart" in der Grammatik (oder: Gibt es Aktionsarten im Deutschen?)(=Linguistische Studien des ZISW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Reihe A, H. 76).
- (1999): Die Kopula *werden* und die Situationstypen. In: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Band 18 Heft 1, S. 121-151.
- Vendler, Zeno(1967): Verbs and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von Stechow, Armin(1983): Sind 'groß' und 'klein' Prädikate oder

Relationen? Ein Interview mit Aristoteles. In: Faust, Manfred(Hg.)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Sprachtypologie und Textlinguistik.
Festschrift für Peter Hartmann. Tübingen: Narr, 105-120.

Zusammenfassung

Semantische Analyse von *werden*-Konstruktionen und die Situationstypen

Rhie, Jum-Chool

Das Ziel dieses Aufsatzes ist es, dass wir alle seit Lakoff(1965) als inchoative Verben angenommenen Konstruktionen aus Adjektiv + *werden* bzw. die dazu synonymen Verben nicht mehr unter eine Kategorie 'Inchoativ' subsumieren, und diese Konstruktionen mutatives(*werden* + *dick*), ingressive(*werden* + *krank*) und duratives Verb(*werden* + *dicker*) untergliedern, und schließlich auf Grund dieser Analyse Vendlers 4 Situationstypen Zustand, Prozess, Accomplishmen und Achievement noch deutlicher spezifizieren.

Mutative Verben sind rechtsbegrenzte Prozessverben, ingressive Verben linksbegrenzte Zustandsverben, und durative Verben nichtbegrenzte Prozessverben. In mutativen und durativen Verben wird der Vorgang als Kontinuum aufgefasst, und in ingressiven Verben wird der Vorgang als diskontinuierliche Aufeinanderfolge zweier Zustände. Übrigens haben mutative Verben obligatorisch Prozesscharakter und der Prozess bewirkt Zustandsveränderung. Ingressive Verben haben nicht primär Prozesscharakter, und möglicher Prozess verläuft innerhalb eines Zustandes. Es gibt also genügend Motivation dafür, *werden* bei allen

drei Klassen in einheitlicher Weise zu beschreiben.

Nach gängiger Auffassung ist die Semantische Form(SF) von *werden* vom semantisch unmarkierten *sein* durch das telische Prädikat BECOME unterschieden. In diesem Aufsatz ersetzt CHANGE das Prädikat BECOME; die Bedeutung von BECOME ist eine der möglichen kontextabhängigen semantischen Anreicherungen von CHANGE. CHANGE ist unterbestimmt bezüglich Telizität und Prozesshaftigkeit. CHANGE[P(x)] ist die Basisbedeutungskomponente von *werden* in allen adjektivischen *werden*-Konstruktionen.

Mit Hilfe von Prädikaten CHANGE, TARG, und ATOM bekommen wir die Beschreibung von Markiertheitsverhältnissen zwischen den Situations-typen, die mit nur zwei semantischen Klassifizierungskomponenten(\pm Prozess, \pm Become) nicht darzustellen sind. Veränderungssituationen sind Nicht-Zustände, markiert durch das Prädikat CHANGE. Veränderungssituationen mit einem Ziel(TARG) sind Ereignisse. Eine Veränderung ohne Begrenzung ist ein Prozess. Achievements sind atomare(ATOM) Ereignisse (TARG). Accomplishments sind durch TARG hinreichend charakterisiert, d.h. eine zielbezogene(TARG) Veränderung, die nicht als atomar(ATOM) gekennzeichnet ist, ist ein Accomplishment.

*이점출: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중앙대 외국어대학 독어학과
Tel.: 02)572-1426, 031)670-3162 E-mail: rhiejc@post.cau.ac.kr
Homepage: post.cau.ac.kr/~rhiejc